

식지 않는 KIA 방망이...6월 첫날 '홈런쇼'

5월에 활화산 같은 타격을 선보인 KIA 타이거즈 타선이 6월 첫 경기에서도 '홈런쇼'를 펼쳐며 기세를 이어나갔다.

KIA는 1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2022 신한은행 쏘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7-3으로 승리했다. 5월에 이어 6월 첫날에도 KIA 타자들이 쾌조의 타격감을 선보였다. 장단 8안타를 몰아치며 두산 마운드를 괴롭혔다.

KIA는 5월 한 달 동안 치른 26경기에서 18승 8패를 기록, 월간 승률 1위를 차지했다. 5월 상승세의 원동력이 된 것은 활화산처럼 터진 타선이다. KIA의 5월 팀 타율은 0.284로 1위였다. 홈런도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30개를 쳤다. 팀 OPS(출루율+장타율) 또한 0.818로 1위를 차지했다. 물론 타격감은 6월의 첫날 잠실 홈런쇼로 이어졌다. 홈런 3방을 몰아치며 팀 홈런 1위 다운 위용을 과시했다.

시작은 박동원의 만루포였다. 4회 초 황대인과 최형우, 이창진의 안타로 1사 만루의 찬스가 만들어졌다.

박동원은 만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상대 선발 로버트스탁의 2구째 시속 158km짜리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작렬했다. 시즌 7호 홈런을 개인 통산 5번째 만루포로 장식했다.

이후 두산이 추격할 때마다 홈런으로 응수하며 흐름을 끊었다.

KIA, 5월 팀 타율·홈런·OPS 1위

1일 두산전 박동원 만루포...최형우·나성범 홈런



2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2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SSG 랜더스의 경기, KIA 8번 타자 박동원이 안타를 친 후 달리고 있다.

두산은 5회말 박계범의 우전 적시 2루타와 호세 페르난데스의 우전 적시타로 2점을 만회했다.

하지만 6회초 선두타자로 나선 최형우의 홈런이 두산 쪽으로 넘어가려던 흐름을 단번에 차단했다. 최형우는 바뀐 투수 김명신의 6구째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6회말 두산이 정수빈의 우전 적시

타로 따라붙은 뒤에도 나성범의 홈런이 터지면서 흐름을 내주지 않았다. 나성범은 7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명신의 2구째 포크볼을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지난달 31일 잠실 두산전에서 5회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역전 3점포, 8회 황대인의 썬기 3점포를 앞장세워 승리를 거뒀던 KIA는 또 홈런 덕분에 승리를 챙겼다. KIA 입장에서는

박동원, 최형우가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이 무척이나 반갑다. 지난 4월 말 키움 히어로즈에서 KIA로 트레이드된 박동원은 타격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5월 한 달 동안 25경기에서 홈런 4방을 쳤지만, 타율이 0.205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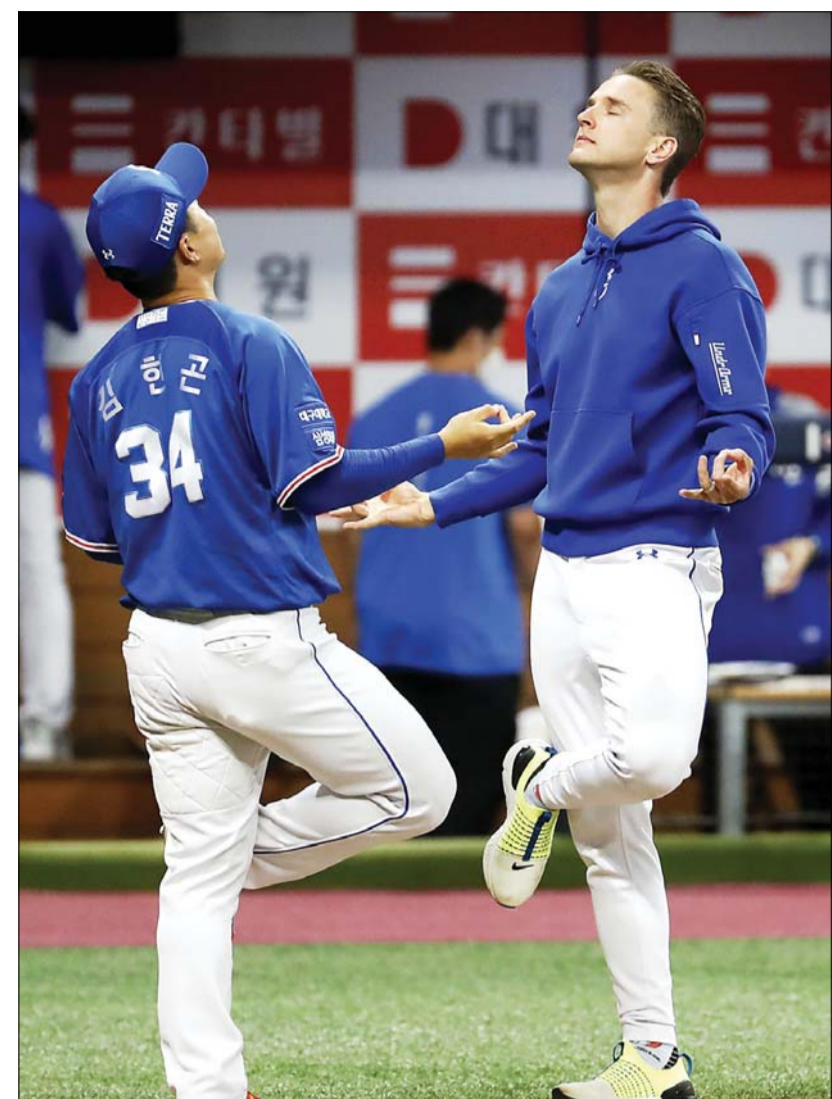
최형우도 부진의 늪에 빠져있었다. 5월까지 최형우는 타율 0.224 2홈런 19타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4월 한 달 동안 홈런을 하나도 치지 못했고, 5월 월간 타율은 0.207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잠실 두산전에서 멀티히트를 날리는 등 타격감을 끌어올린 박동원은 이날 홈런으로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이면서 부활 기미를 보였다.

최형우는 5월 28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 이후 3경기 만에 시즌 3호 홈런을 날리면서 역시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다. 이날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KIA의 상승세에 앞장선 황대인,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이날도 각각 4타수 2안타 1득점, 4타수 1안타 1타점으로 타격감을 유지했다.

'150억 사나이' 나성범도 이날 시즌 9호 홈런을 날리며 꾸준한 모습을 이어간 상황이다. 여기에 박동원, 최형우까지 살아난다면 KIA 타선은 상대에게 한층 위압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KIA의 상승세는 6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승리 만끽 삼성 류캐년 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 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4:2로 승리하며 선발승을 기록한 삼성 류캐년이 김현군과 요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바둑중 이서영 소년체전 최우수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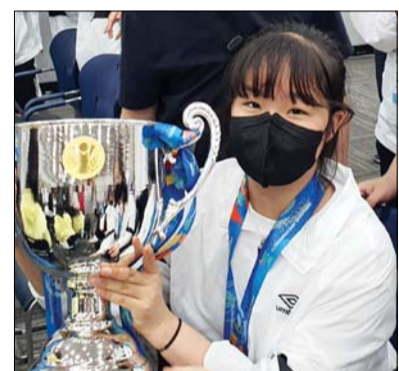
바둑 단체전 우승...지난해는 개인전 우승

순천 한국바둑중학교 1학년 이서영(14)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1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한국바둑중학교는 지난 달 2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남중부·여중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서영은 남중부 이태섭(1학년) 선수와 함께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이서영은 지난해 제5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바둑선수권 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전 바둑 부문 초등 여자부 개인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서영은 당시 광주 광산구 은빛초 6학년이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 중 소년체전 바둑 부문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서영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은빛초를 졸업한 뒤 한국바둑중에 입학했다.

프로기사가 꿈인 이서영은 "압도적인 실력의 여류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남 학생선수단은 금메달 15개·은메달 19개·동메달 23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박종배 기자

벤투 감독 "브라질전, 압박 강하지만 우리 플레이"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8시 브라질과 평가전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 선전을 다짐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브라질전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브라질의 수준은 익히 잘 알 것이다. 이전 경기들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좋은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을 갖는다. 브라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적인 축구 강호다. 월드컵 최다 5회 우승에 빛나고,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다니 알베스(바르셀로나) 등

이름만 대면 아는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하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은 약점이 많지 않지만 우리도 공격과 수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선수들의 장점과 특징을 살릴 것이다"고 했다.

브라질전 상대전적은 6전 1승5패다. 1999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19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가진 평가전으로 0-3 완패를 당했다.

벤투 감독은 3년 전, 패배를 기억하며 "실수들이 있었지만 잘 경쟁하면서 싸웠다. 공격 쪽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고, 수비 쪽에서도 상대에

게 많은 기회를 허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내일도 좋은 경기력, 최선의 결과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중장수비의 핵인 김민재(페네르바체), 박지수(김천외)와 이재성(마인츠) 등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김진수(전북)도 브라질전에는 나설 수 없다.

수비의 핵 김민재를 대체할 선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벤투 감독은 "상대의 압박을 좋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 공격은 우리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브라질은 압박을 잘하고, 강하다. 고강도 압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행복해남!

해남형 ESG로 살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요!

탄소 중립도시 완성
청정해남

환경 Environment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 탄소저감

안전망 구축
함께해남

사회 Social

안전망 구축 | 경제활력 제고 | 교육·공동체 육성

공정한 윤리경영
청렴해남

지배구조 Governance

청렴한 공직문화 | 혁신과 참여행정 | 건전재정